

조계사서 연변동포가 밝힌 北실상

중국 연변에 거주하며 수년 전부터 10여차례 북한을 오가면서 구호활동을 펼치고 있는 한 지식인이 14일 북한의 식량사정과 지원활동 상황을 밝혔다. 이달 초까지 북한을 방문하고 일 시 내한한 그는 우리민족서로돕기위원회(위원장 박정호)가 마련한 3차 사량방 모임에서 북한주민의 참상을 생생히 전했다.(본인의 요청에 따라 이름은 밝히지 않는다)

지난 3월 평안북도 한 병원을 방문하고 있는데 피투성이 된 아이가 실려왔다. 허기진 배를 채우느라 고기를 계속 먹어 대변이 나오지 않자 대변을 끓여 내려다 뚫어먹고 있었다. 그 아이는 결국 오후에 죽고 말았다...

북한은 지난 3월25일부터 중앙당 특명으로 '농민시장'에서 일질 고기를 팔지 못하도록 했다. 최근에 식량난이 가중되면서 농민시장에 인육(人肉)이 나오자 그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농민시장에 인육이 나와 있는 것을

흠뻑 먹은 어린이 배변 안돼 죽어 농민시장에 나온 人肉 직접 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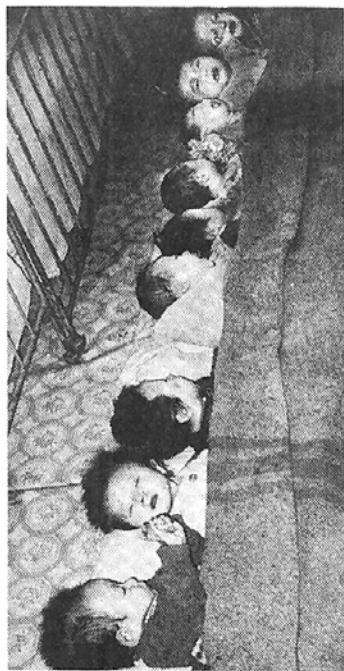
내가 직접 보았다.

평양의과대학병원은 마취제 한 방이 없어 수술을 못하고 입원실은 텅텅 비어 있다. 환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환자들을 치료할 약품이 없어서다. 한 병원관계자는 나를 붙잡고 애원을 했다. "선생님, 폐렴환자가 계속 늘어 가고 있는데 페니실린이 없습니다. 다음 오실 때에는 페니실린을 좀 구해주시지요."

내 민족, 나와 피를 나눈 동포가 굶어 죽어 가고 있으니 동자네 왜 그렇게 구구절절 이유가 많은지 이해할 수가 없다. 통일이 되고 난 후 북한 사람들이 '왜 그때 우리를 돕지 않았느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북한사람들이 갖게 될 아픔과 원망의 고통을 어떻게 풀 수 있었는가.

이젠 너무 늦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전 국민이 내민 손을 살리는 운동에 나선다면 50년 분단의 세월 동안 쌓인 감정은 충분히 풀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간디가 '함께 걸어가는 것이 가장 분명한 사람이다'는 말을 했다.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 모두가 느꼈으면 한다.



굶주린 아이들 북한 평북 용연군의 한 고아원에 칠명이 누워있는 아이들. 최근 북한을 방문한 美 의원은 올 6월이면 북한주민 6백만 내지 8백만명이 굶어 죽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돕기 성금모금 청구

- 거례사량대구경북동분부 (053)555-0411
- 동국대 공보실 (02)260-3027
- 실천불교전국승가회 (02)725-4277
- 우리민족서로돕기위원회 (02)3672-5373
- 태고종 총무원 (02)745-2030

“지방 곳곳에 아사자”

외신이 전하는 北韓 식량난 참상

최근 북한을 방문한 토니 홀 미국 하원 의원(민주당)이 경고한 '6월 식량 위기설'이 가까워지고 있다. 이 위기설은 다름 아닌 북한주민중 6백만명에서 8백만명이 굶어죽을 것이라는 것.

북한의 실상은 외교관, 외신기자, 탈북자, 세계식량계획기구(WFP) 등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다. 이들이 전하는 북한주민이 겪는 비극실상을 모았다.

(편집자 주)

해골같은 어린이 성장명치 병원마다 약품부족 환자 18% 사망 여성들 호구지책 중국인에 팔려가

▲함경도 주민의 양면 배급이 끊겨 사라진 근처 한 밥공정이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와 강원도 지역은 굶주려 죽는 사람이 많다. 특히 금강산 일대 지역은 곳곳에 시체들이 널려있다. 먹을 것을 구하려 다니다가 허기져 그냥 쓰러져 버린 것이다. 그러나 이 지역 북한주민은 시체를 치우며 여려조차 없다.

▲평양의 북쪽에 위치한 희천은 북한의 대표적인 산업도시. 그러나 전력과 원료가 없어 문을 닫는 공장들이 속출하고 있다.

▲북한정부는 지난 3월부터 '농민시장'에서 육고기를 팔지 못하도록 했다. 식량난이 가중되면서 인육이 나온다는 풍문이 있기 때문. 어류 또한 거래를 규제하고 있다. 어부들이 고기를 국가에 바치지 않고 시장에 내놓기 때문이다.

▲북한주민들은 하루 1백g의 식량밖에 얻지 못한다. 1백g의 식량이라면 겨우 4백50칼로리에 불과하며 노동을 하기 위한 최소 필요량인 1천5백칼로리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심각한 기아에 허덕이는 북한주민들

이 병원을 찾은 횡수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의약품이 부족해 8백명을 수용하는 병원 기준 약 18%의 환자가 사망하고 있다.

▲신주의의 탁아소와 유치원들이 식사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신주의는 8천8백여명의 어린이 가운데 일곱 살 이하인 3천4백명이 영양부족으로 성장이 멈추어 버렸으며 1백40여명은 매우 심각한 위험에 직면해 있다.

▲함경남도에서는 일가족이 전선을 1백m 훑쳐 중국 상인들에게 팔다가 체포됐다. 배가 고된 나머지 옥수수나 바퀴벌레 먹이로 채웠다. 이 사건으로 어머니와 아들은 총살을 당했고 사위와 딸은 15년 구형을 받았다. 북한은 지난 3월1일부터 곡식을 훔치다가 발각되면 두사람 이상의 중인이 있을 경우 즉결로 총살형에 처하고 있다.

▲인구 30만명의 신의주에는 배급소가 모두 텅 비어 있다. 이곳의 화학공장은 연료와 원료 부족으로 모두 문을 닫았다. 그래서 공장 일꾼들은 저임금의 중국 하청 일을 맡아 옷을 만들고 있다고 신의주시 관리인 김석현씨는 말한다.

▲북한여성이 중국으로 팔려가고 있다. 국경을 수시로 넘나드는 중국인 밀무역자에게 팔려가는 북한 여성들의 몸값은 연변 흑룡강성 장춘 등지에서 1만위안(한국 돈 1백10만원) 최고 5만위안. 이들 대부분은 마치 노예처럼 부려진다. 그러나 불법체류의 신분으로 하소연조차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절대 복종하고 있다.

▲4월15일 김일성 생일을 기념해 중국 러시아 몽골 쿠바 이탈리아 등 40개국에 참여한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는 총극을 연출했다. 이 행사를 위해 20억위안이라는 거액이 소요됐다고 한다.

오종욱 기자

'봄을 탄다' '먹새가 좋지 못하고 허약한 체질의 사람은 봄을 두려워 한다'

신선한 채소를 겨울동안 접하지 못했던 시절, 영양의 불량 특히 비타민C의 섭취 부족에서 오는 증상들이다. 인간, 원숭이와 모르모트는 비타민C를 합성하는 유전자가 돌연변이로 그 능력을 잃었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으로부터 이것을 공급받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 식품중 신선한 채소와 과일, 김치 이외에 비타민C 자원으로 주요한 것 중에 콩나물을 들 수 있다. 마른

콩나물국과 그릇

콩 중에는 비타민C가 없으나 썩어 틀에 따라 비타민 C가 생기기 시작해 먹기 적당한 크기로 생각했을 때는 신선한 무나 배추에 견줄 정도의 비타민C가 생기게 된다. 조리된 콩나물국 중에 상당량의 비타민 C가 함유돼 있어도 다른 용기에 옮길 때 극적인 산화 파괴가 일어난다. 즉 기름이 없는 깨끗한 표면을 가진 유리 그릇으로 된 국그릇의 경우는 순간적으로 비타민C가 거의 다 파괴되며, 알루미늄(실제로는 알루미늄이), 사기 그릇에서는 각각 1/2과 1/3 가까운 양의 비타민이 용기 벽에 접촉하는 순간 산화파괴된다. 용기 표면에서의 접촉작용과 표면에 존재하는 극미량의 구리, 철분이 발휘하는 산화촉매작용 때문이다.

사기·놋그릇에 담으면 비타민C 뛰어상 파괴

국물로 용기씻으면 산화예방



조리하는 물의 수질 또한 중요하다. 철분, 염소 함량이 많은 물에서는 산화 파괴가 심하다. 그러나 그릇에 옮길 때 앞서 소량의 국물국로 그릇 표면을 골고루 씻어내면 용기 표면에 기름 피막이 형성돼 산화파괴 반응을 상당히 막을 수 있다. 채소 중에는 보통 비타민C의 산화를 촉진하는 산화효소가 있다. 비타민C가 이 효소와 접촉이 활발해지는 조리 조건에서는 비타민C가 상당량 산화 파괴된다. 미식나 녹즙기를 통한 과즙 녹즙은 비타민C가 대부분 산화된다. 금속 존재 하에서 과다한 공기와 효소작용 때문이다.

비타민은 열에 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극미량의 금속이온과 효소작용이 온도가 높으면 활발해지기 때문이다. 한편 단백질소들은 열에 의해 변질된다. 따라서 끓는 물에 채소를 데치면 산화효소작용을 억제할 수 있어 비타민C는 대부분 보존된다.

이태녕 (서울대 명예교수·화학)

만화

백야행

이향원

어리석은 왕

옛날 어떤 왕이 딸 하나를 낳았는데 성미급한 왕은 의사를 불러 아기가 당장 큰 아이로 자랄수 있는 약을 만들라는 명을 내렸는데

대왕마마 아가공주님을 금방 자라게 하는 약을 만들라는 명이 심니까?

그대는 이나라 최고의 명의인데 못 만들라는 말이냐?

만들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 유니다

그럼 당장 만들어 공주에게 먹이도록 하라

그약제가 있는 곳은 아주 먼곳이름 필요하합니다

그러지 약을 구할 시간은 얼마든지 주마

약의 효험을 제대로 얻으려면 약을 만들어 올 동안 공주님을 보시면 안되유니다

약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하지

의사는 약을 구하러 궁궐을 떠난지 12년만에 돌아왔다

약은 어찌 되었는고?

천신만고 끝에 구했나이다

어서 빨리 공주에게 약을 먹여 장성한 공주를 내게 보여라

에 대왕마마

의사는 공주의 방으로 들어가 약을 먹인 후 데리고 나왔다

공주님이 심니다

오! 저 아이가 나의 딸

갓난 아기를 이렇게 자라게 하다니 정말 놀랍도다

큰 상을 내리겠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어리석은 왕을 크게 비웃었다

12년 동안 공주가 자란 것은 생각않고 약의 힘으로 만다니

어리석기 짝이 없는 왕 같으니라고

세상 사람들도 이와 같아서 선지식을 찾아 가서 말하기를

도를 구하러 왔습니다 원컨대 저를 가르쳐 당장 선지식이 되게 해주소서

스승은 방편으로 그에게 좌선을 하면서 열두가지 인연을 관찰하게 하고 온갖 덕을 쌓게하여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게 하니

아! 훌륭하시다! 큰스승님은 저로 하여금 가장 빨리 경지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추천옥산가 옥의 신비!

건강에 가장 중요한 물질인 뇌내 모르핀 분비를 활성화시켜 모든 병을 호전시킵니다.

氣(기)는 생명력, 강한 기를 당신에게!

짜릿짜릿한 느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 ★ 내용-부처님도량, 이 가마를 정정하게 가꿈시다 (SOD, 정혈작용 때문에)
- ★ 혈액순환을 도와 모든 성인병의 근원을 제거한다. (세노노를 제거 때문에)
- ★ 현대인의 불안, 초조, 신경질, 화병 또는 노화방지제... (뇌내 모르핀 활성화 때문에)
- ★ 장다력, 집중력, 골다공증이 잡혀 갑니다. (조금의 차이도 1달을 이깁니다)

꾸준히 사용에 보십시오. 참으로 잘 듣습니다.

복경중의원 부속중의연구소 임상실험 결과

중국내 난치병 환자를 상대로 임상실험 결과

골다공증96.9%, 심장질환자 92.9%, 귀울림 91.3%, 어지러움증91.3%, 두통83.3%, 교활양77.8%, 관절염60%의 놀라운 치유 효과를 기록했다. (93. 2. 17 서울신문)

옥산가 옥이 약효는 아닙니다. 그러나 한의사 추수경(1)에 인공은 백병을 다스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50번지 (브명명 백화점 지하상가 입구)

毛山家

777-0105 (후편편)

난치병 치료

수백년 비전된 한방 의술로 난치병, 불치병을 치료하고 있는고봉선생은 사암침술과 최고양질의 한약재로 만든 환약(알약)으로 치료합니다.

정신질환, B형간염(만성간염), 중풍(발병 후 3년이상), 디스크(좌골신경통), 기관지천식, 신경성위장병, 심부전증, 관절염, 백혈병등에 탁월한 효과

- 당뇨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치료합니다.
- 진료 : 매주 목요일, 일요일
- ▲ 주변에 병고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없지요?
- ▲ 온갖 방법을 다 써도 실패한 분께 권해드립니다.

전화문의 : (053)628-9145 (053)655-3027

대구여래한방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봄이 오는 소리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大地를 지는 빗방울 소리 가슴에 와 머문다. 조그만 물일 뿐에도 따뜻한 생명의 승리가 살아 숨쉬고 찬바람 불어오던 겨울은 지나고 살얼음 낄 녹아 내리는 청아한 여울 물소리

바람 가아지도 겨울잠 깨고 일말을 머트리는 속삭임 상큼한 봄 내음 생기를 머금고 봄벌 따스한 온기가 大地를 모근하게 감싸며

하늘은 푸르고 구름은 노래하며 바람은 춤을 춘다 내 그리움 또한 그속에 머물고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원장 이자임

대우, 초·재혼 신원 확신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지방에게 신 불자님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바랍니다.

이자임 결혼연구원

원장 이자임 함장 (법명: 無生子)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18번지 영신상가3층 317호

대표전화 : (02) 634-4910 ~ 2

관음출판사

시주학 핵심비결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승월스님 옮김

김백만 편지

운명학 기초에서 완성까지 가장 쉽게 정리하여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명클

신국판/김20,000원

부적을 절대성하여 최초로 공개하는 비밀스런 책입니다. 당신에게 요긴한 책이 될 것입니다.

AS신/양장본 /35,000원

알기 쉬운 천수경 강의

천수경 강의

누구든지 큰 자비심을 일으켜서 지극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거나 천수경을 하듯함에 다섯 번만 외워도 백천만억 겁에 지은 무거운

관음출판사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75-14 광생빌딩

전화: 921-8434 팩스: 929-3470